

산골 할머니의 구수한 일상, 지친이들에게 힐링

소 키우고 집짓고 한글 배우고 24시가 부족한 '임선녀 할머니' 수목화같은 삶에 몽클한 감동 '워낭소리' '남아...' 뒤잇는 명작



강원도 산골에 사는 68세 할머니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한창나이 선녀님'이 20일 개봉한다. 뒤늦게 한글을 배우고, 홀로 집짓기에 나서는 등 할머니의 도전이 몽클한 위로와 울림을 안긴다. 사진제공 | 넷플릭스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당당히 홀로 살아가며 여전히 새로운 꿈을 꾸는 68세 할머니의 이야기가 관객을 찾아온다.

'나 혼자' 사는 게 너무나 바쁘고, 그래서 모두 '계획이 있는' 임선녀 할머니가 주인공인 '한창나이 선녀님'(감독 원호연·제작 큰물고기미디어)이 20일 개봉한다. 최근 열린 제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은 작품으로 개봉 전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 최고 흥행을 기록한 '워낭소리'와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등을 잇는 웰메이드 작품으로도 호평 받고 있다.

'선녀님'이라 불리는 할머니의 일상은 특별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욱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꿈을 가지라고!" "잘~살아보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정겨운 시골 풍경

'임선녀', 하늘로 올라가라고 붙여진 이름이다. 열여덟 나이에 시집와서 소 키우고 농사지으며 살아온 게 전부인 할머니이다. 하지만 소먹이 주고 소똥 치우며 빨감도 만드는가 하면 어느새 지붕에 널어둔 도루묵을 걷는 할머니의 하루

는 24시간도 부족하다. '선녀'가 아니라 그야말로 '천하장사'이다. 못하는 게 없는, '열혈' 할머니이다.

평범하지만 바쁜 일상은 평양냉면처럼 '습습한' 맛을 느끼게 한다. 그 위에 그가 툭툭 내뱉는 투박한 강원도 사투리는 되레 능청처럼 구수한 맛을 안긴다. 집 뒤로 펼쳐져 한 폭의 수목화를 연상케 하는 강원도의 사계가 담아내는 풍경은 꿈을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가는 할머니의 일상과 어우러져 몽클한 감동을 자아낸다.

감동은 할머니가 한글을 깨우쳐가는 과정에서 더해진다. "이제 와서 택시비 아깝게 무슨 공부냐"는 자식의 말에

도 그가 한글을 배우는 건 몇 년 전 사별한 남편의 유언 때문이다.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꿈꿔가는 여정은 결국 집짓기에 '도전'하는 데에까지 이른다.

"혼자라도 좋은 집 지어 살아보아야 하지 않겠나?" 할머니의 툭툭툭툭 망치질과 툭질은 이를 바라보는 이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한다.

시사회를 통해 영화를 본 관객들은 "선량하고 선한 사람들의 삶이 감동적이다"거나 "선녀님의 소탈한 활기 앞에서, 삶은 애쓰면 충분히 넘을 수 있는 만만한 고개가 되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

다. 지난해 '부재의 기억'으로 미국 아카데미상 단편다큐멘터리 부문에 후보로 올랐던 이승준 감독은 "세상을 설명하려 하고 누군가를 설득하려 하는 것에 지칠 때 따뜻한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감독의 여백이 한없이 반가운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호평했다.

●4년의 제작 기간

연출자 원호연 감독은 4년의 시간을 촬영지인 강원도 도계에서 보냈다. "후면 다큐멘터리 영화 작업을 10년 동안 해오다 5~6년 전쯤 한 방송에서 '평생 힘들게 살았는데 늦게나마 한글 공부를 하게 되어 무척 기쁘고 즐겁다'는 임 할머니의 인터뷰를 보고 울컥 우리의 어머니와 할머니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산 많고, 물 맑고, 사람들이 순수한 강원도가 주는 느낌이 좋았다"는 그는 "글을 배운다는 건 어린이와 같은 순수함과 닿아있는 일이기도 해 지역을 생각했을 때 바로 강원도를 떠올렸다"고 말했다.

그리고 임 할머니를 만났다. 혼자 소를 키우며 농사를 짓는 임 할머니에게서 "살아가는 에너지"를 느꼈다고 한다. 원 감독은 "그분의 표정과 행동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감정에 집중했다"며 "영화를 보는 관객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오직 주인공에게만 몰두할 수 있도록 했"고 말했다. 이어 "엔딩 부분에 할머니가 환하게 웃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통해 오늘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정혜 기자 annjoy@donga.com

할리우드 대작들이 몰려온다

'베놈2' 100만 관객 돌파 뒤이어 '라스트 듀얼·이터널스' 곧 개봉

17일 영화 '베놈 2: 렛 데이 비 카니지'가 전국 누적 100만 관객을 돌파한 가운데 할리우드 대작들의 공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경우 밤 10시까지였던 극장 영업시간이 18일부터 자정까지로 연장되면서 극장가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할리우드 대작들은 여름시즌부터 추석 연휴까지 한국영화가 장악했던 박스오피스 자리를 물려받았다. '베놈2: 렛 데이 비 카니지'에 앞서 '007 노 타임 투 다이'도 인기 시리즈답게 17일 현재까지 112만4000여명(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동원했다.

이어 또 다른 할리우드 대작들이 찾아온다.

티모시 샬라메가 주연하고 '시카리오' 시리즈의 드니 빌뇌브 감독이 연출해 호평 받고 있는 '듀얼', '본' 시리즈의 맷 데이먼과 할리우드 거장 리들리 스콧이 손잡은 '라스트 듀얼: 최후의 결투'가 20일 나란히 개봉한다. 11월에는 마블 스튜디오의 새로운 히어로물로 마동석이 안젤리나 졸리 등과 함께한 '이터널스'가 관객을 만난다. 또 12월 '스파이더맨'의 새 시리즈인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도 연말 관객몰이에 나선다.

극장가는 주로 시리즈물이거나 국내 관객에 낮은 이야기를 변주한 내용으로 새롭게 흥행을 겨냥하는 할리우드 대작들의 활약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특히 11월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지역인 수도권의 극장 영업시간도 18일부터 늘어났다. 전국 극장의 절반 이상이 자리할 만큼



'베놈2: 렛 데이 비 카니지', '듀얼', '라스트 듀얼: 최후의 결투', '이터널스'(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등 할리우드 대작들이 연말까지 잇따라 개봉해 극장가에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사진제공 | 소니픽처스코리아·워너 브라더스 코리아·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흥행 판도의 절대적 비중을 지닌 수도권에서 할리우드 대작들이 거둔 성적이 연말까지 국내 극장가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별다른 한국영화 기대작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올해 연말까지는 할리우드 대작들의 독무대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3

원로배우 최지희, 루프스병 투병중 별세



최지희

원로배우 최지희(김경자)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81세. 최지희는 17일 낮 12시경 서울 은평성모병원에서 루프스병으로 투병하던 중 폐렴 증세로 숨을 거뒀다. 일본 오사카에서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최지희는 1946년 귀국 후 경남 하동에서 자랐고, 1956년 영화 '인간 홍길동'으로 데뷔했다. 1958년 이강천 감독의 '아름다운 낙원'로 스타덤에 올랐고, '오부자' '애모' '김약국의 딸들' 등에 출연했다. 과거 한국원로영화인회 회장을 역임했고, 2011년 올해의 여성영화인 공로상을 수상했다. 빈소는 서울 중구 을지로 백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발인은 19일 오전 9시. 한국영화인원로회가 장례절차를 주관한다. 장지는 경기도 분당 스키아일랜드공묘원이다.

블랙핑크 리사, DJ 스네이크 새 싱글 협업



블랙핑크 리사

블랙핑크 멤버 리사가 미국 유명 DJ인 DJ 스네이크의 새 싱글에 참여해 22일 발표한다. DJ 스네이크는 2015년 빌보드뮤직어워즈에서 '최우수 댄스 일렉트로닉 음악상'을 받은 프로듀서이다. 리사가 팀이 아닌 솔로로서 해외 아티스트와 협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리사는 최근 솔로 앨범 '라리사'를 내놓고 전 세계 72개국 국가 및 지역 아이튠즈 톱 송 차트에 오르는 등 인기를 끌었다.

방송인 최은경, 결혼기념일 1000만원 기부



최은경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은경이 23번째 결혼기념일을 맞아 선행을 펼쳤다. 최근 최은경은 SNS를 통해 17일 아름다운재단에 '발리네집 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증명서를 게재했다. 최은경은 1995년 KBS 21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해 활동하다 프리랜서로 전향했다. 대학교수인 이상엽 씨와 1998년 결혼했다.

임영웅·BTS 진...스타들의 OST 효과만점

임영웅, '신사와 아가씨' OST 데뷔 유튜브 250만뷰·음원차트도 5위권 BTS 진, '지리산' 첫 OST 관심집중

트로트 가수 임영웅,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진 등 톱스타들이 드라마 OST 시장에 잇따라 출사표를 던졌다. 가수들은 OST로 그동안 미처 보여주지 못한 매력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고, 드라마는 이들의 참여로 시청자 시선은 물론 귀를 사로잡는 '원원 효과'를 노리고 있다.

임영웅은 KBS 2TV 주말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의 삽입곡인 '사랑은 늘 도망가'에

목소리를 얹었다. 그의 첫 OST 도전으로 화제가 된 노래는 17일 오차 현재 각종 음원차트 5위권 내에 안착했다. 공식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서 250만뷰를 넘겨 인기 급상승 동영상 차트에도 올랐다. 임영웅은 그동안 다양한 OST 제안을 받던 중 선택배수 이문세의 노래를 리메이크한다는 점에 이끌려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7%(닐슨코리아)의 시청률을 찍은 드라마는 중장년층뿐 아니라 유튜브와 음원사이트를 이용하는 젊은 시청자들의 호기심까지 모으고 있다. '신사와 아가씨'의 실시간 댓글창에는 "임영웅 노래로 드라마를 알게 됐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임영웅

BTS 진

방탄소년단의 진은 23일 첫 방송하는 tvN '지리산'의 주제곡을 부른다. 제작사 측은 "드라마 중반부터 노래가 나올 것"이라며 정확한 공개 일정을 밝힌 가운데 국내

외 팬들은 '지리산'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진이 드라마 주제곡을 처음으로 단독 가창하는데 보유한 솔로곡도 많지 않아서다. 방탄소년단은 '지리산'의 대본을 쓰는 김은희 작가의 전작 '시그널'을 리메이크한 일본영화 OST를 올해 4월 내놓은 바 있다.

이들의 참여로 OST의 흥행에 대한 기대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 '신사와 아가씨' OST를 제작하는 모스트콘텐츠의 한 관계자는 17일 "OST는 드라마 시청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동시에 또 하나의 음악 사업이어서 대중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드라마 분위기에 잘 녹아들면서 시청자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교집합'을 지닌 가창자를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